

宋代 詩學에서 自然論의 전개와 특색 연구*

이 치 수**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宋代 自然論의 특색 |
| II. 宋代 以前의 自然論 | V. 나가는 말 |
| III. 宋代 諸家の 自然論 | |

I. 들어가는 말

중국 문학의 여러 장르 중, 詩는 그 역사가 상당히 悠久한데, 옛날부터 詩를 짓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나 詩를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作 詩의 원리나 창작 방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詩歌 창작의 최고 원리이자 理想的의 境界인 ‘自然’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自然’이라는 개념을 대단히 중시하며 이에 입각하여 詩를 짓고 평가하고 감상하면서 점차 詩學理論 ‘自然論’이 형성되었다. ‘自然論’은 본래 철학사상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던 것이 魏晉南北朝에 들어 文學의 경우에도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唐代를 거쳐 宋代에 들어서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전개되었다.

중국의 고전 문학비평은 宋代에 이르러 본격적인 탐구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詩의 경우, 詩話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詩論이 전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복원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개되었으며, ‘自然’으로 詩를 논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보편화되면서 ‘自然論’이 많은 사람들의 중시를 받았다. 본고에서는 宋代 詩學에서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인 ‘自然論’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우선 그 배경으로 宋代 이전의 ‘自然論’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宋代에 들어 詩學에서의 ‘自然論’의 전개와 특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宋代 以前の 自然論

‘自然’은 본래 중국의 철학, 특히 老子와 莊子の 철학사상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이었던 것이 점차 그림이나 글씨 같은 예술 분야나 詩文을 비롯한 문학의 영역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自然’이란 말은 老子의 《道德經》에 제일 일찍 보인다.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 제25장에서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道를 본받으며 道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라고 하였다. ‘道’는 老子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道’는 天地 萬物을 낳고 기르지만 점유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유로이 발전하고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고 본다. 제17장에서는 太古 시절의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임금은 한가로이 지내면서 말을 적게 하는데, “功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말하길,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룬 것이라고 한다(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임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여기지 않고 일이 본래 마땅히 이러하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老子는 人爲의인 것을 加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 맡기는 것을 말하였다. 인위적인 것을 반대하고 ‘無爲’를 강조하였으며, 사람들이 소박하고 순진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莊子에게도 이어져서 〈田子方〉편에서는 “무릇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은 아무런 作爲 없이 물의 본성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至人 이 德에 있어서 닦지를 양지만 萬物이 떠나가지 않는데, 하늘이 저절로

높고 땅이 저절로 두터우며 해와 달이 저절로 밝은 것 같으니 무슨 닦음이 있겠는가!(夫水之於沟也, 無爲而才自然矣. 至人之於德也, 不修而物不能離焉, 若天之自高, 地之自厚, 日月之自明, 夫何修焉.)”라고 하여 人爲나 作爲가 아닌 無爲의 自然에 순응할 것을 말했다. 莊子は 또 <應帝王>편에서 渾沌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물의 본래 모습인 ‘自然’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며 天然 상태를 잘 보존할 것을 강조하였다.¹⁾

이러한 自然論은 漢代에도 이어져서, <淮南子>와 王充의 <論衡> 등에서 ‘自然’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되었다. 魏晉南北朝 때에는 名教와 ‘自然’의 관계에 대한 論辨이 嵇康과 阮籍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다.

先秦과 漢代 이후, 哲學의 영역에서 거론되던 自然論이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이제 哲學뿐만 아니라 文藝의 영역에서도 ‘自然’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들어 중국문학비평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게 되는데 魏의 曹丕의 <典論·論文>에는 아직 ‘自然’을 정식으로 논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西晉에 이르면 陸雲의 글에서 ‘自然’을 언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니, “제가 지금 생각으로 글을 보면 淸省을 좋아하여 더하여 꾸밈이 없이, 뜻이 여기에 이르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자 합니다.(雲今意視文, 乃好淸省, 欲無以尚, 意之至此, 乃出自然.)”(〈與兄平原書〉)라고 말했다. 陸雲이 보기에 陸機의 글이 繁富한 면이 없지 않다고 여기며 ‘淸省’, 즉 淸新 簡潔한 글을 제시하면서 생

1) 黃錦鉉, <新譯莊子讀本>, 三民書局, 1989, 122쪽. “南海의 임금인 儵이고, 北海의 임금인 忽이며, 중앙의 임금은 渾沌이라 했다. 儵과 忽은 때때로 渾沌의 땅에서 만났는데, 渾沌이 그들을 아주 잘 대접하였다. 儵과 忽은 渾沌의 恩德에 보답할 것을 의논하다가 ‘사람들은 모두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渾沌만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시험 삼아 구멍을 뚫어 주자.’라고 말하였다.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는데, 七日이 되자 渾沌이 죽어버렸다.(南海之帝爲儵,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渾沌. 儵與忽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각이 일면 바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을 말했다.

自然論은 齊梁 시기에 들어서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점차 이론적인 접근이 시작되었으며, 劉勰과 鍾嶸의 견해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劉勰은 ‘自然’이란 말을 사용하여 문학을 비교적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우선 그는 글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마음이 생기면서 말이 이루어지고 말이 이루어지면 글이 분명하게 되니, 자연스러운 이치이다.(心生而言立, 言立而文明, 自然之道也.)”(《文心雕龍·原道》)”라고 말하였고, 〈明詩〉편에서는 詩를 논하면서 “사람이 일곱 가지 감정을 품부 받아 가지고 있어 사물을 접하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면 마음을 읊조리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고 하여, 사람이 외부 사물을 접하면서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마음을 읊조리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詩文의 창작에 있어서 유희는 修飾을 講究하면서 ‘自然’ 또한 중시하였는데, 對偶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自然成對)”(《麗辭》)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묘함은 비유컨대草木이 아름다움을 내뿜는 것과 같다.(自然會妙, 譬卉木之耀英華.)”(《隱秀》)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劉勰은 문학의 탄생 문제부터 시작하여 창작에서의 자연스러운 표현 등 여러 면을 고찰하면서 ‘自然’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같은 시기의 鍾嶸 또한 《詩品·序》에서 ‘自然’을 언급하였다. 鍾嶸이 보기에 古今의 佳句들은 옛 사람의 말을 빌려오지 않고 모두가 직접 보고 느낀 바를 抒寫한 것들인데, 顏延之와 謝莊의 詩가 典故를 많이 사용한 이후, 大明과 泰始 연간의 詩文은 거의 책을 베끼는 것과 같았으며, 이것이 점차 풍조를 이루면서 마침내 詩句에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말이 없고, 詩語에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글자가 없게 되었으며, 자연스러우면서 정취를 잘 나타내는 詩(自然英旨)를 짓는 사람을 만나기가 아주 드물게 되었다.²⁾

2) 何文煥, 《歷代詩話》上, 中華書局, 2001, 4쪽. “觀古今勝語, 多非補假, 皆由直尋. 顏延、謝莊, 尤爲繁密, 於時化之. 故大明、泰始中, 文章殆同書抄. 近任

鍾嶸은 典故의 지나친 사용을 반대하면서 ‘自然’을 강조하였다. 그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물을 직접 접하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直尋’과 ‘直致’이다.³⁾ 鍾嶸은 音律에 대해서도 自然音律美를 매우 중시하여 永明 시대에 성행한 沈約 등의 聲病說을 비판하면서, “단지 清濁이 잘 통하여 흐르게 하고 입술에서 읊조림이 순조롭게 되면 이것으로 족하다.(但令清濁通流, 口吻調利, 斯爲足矣.)”(《詩品·序》)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蕭子顯은 《南齊書·文學傳論》에서 詩文의 창작은 미리 구상을 하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타내고자 하여도 나타내지 못해 애 태워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붓을 들어야 되며, 말은 쉽고 文辭는 뜻을 뛰어넘지 않도록 하면서 가슴 속의 감정과 딱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⁴⁾

自然論 논의는 唐代에 들어서도 계속 되었다. 皎然은 詩論에서 ‘自然’을 추구했다. 우선, 皎然은 作詩에서 苦心어린 構想을 중시했으며,⁵⁾ 지극히 고심을 하되 흔적을 보이지 않아야함(至苦而無跡)을 강조하였다. 雕琢을 하되 흔적을 보이지 않고 적절히 하면서 예술적 효과를 거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기에, 對偶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⁶⁾,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⁷⁾ 이와 같이 皎然의 ‘自

昉、王元長等，詞不貴奇，競須新事，爾來作者，浸以成俗，遂乃句無虛語，語無虛字，拘攣補納，蠹文已甚，但自然英旨，罕值其人。”

- 3) 《詩品·序》에서 “觀古今勝語，多非補假，皆由直尋。”이라 말한 것 외에도 《詩品》上品에서 陸機의 시에 대해 “有傷直致之奇”라고 평한 바 있다. 같은 책, 8쪽.
- 4) 郁沅·張明高, 《魏晉南北朝文論選》, 人民文學出版社, 1999, 341쪽. “若夫委自天機, 參之史傳, 應思排來, 忽先構聚. 言尚易了, 文憎過意, …… 獨中胸懷.”
- 5) 何文煥, 앞의 책, 31쪽. 《詩式》 ‘取境條: “又云, 不要苦思, 苦思則喪自然之質, 此亦不然, 夫不入虎穴, 焉得虎子? 取境之時, 須至難至險, 始見奇句. 成篇之後, 觀其氣貌, 有似等閑不思而得, 此高手也.”
- 6) 같은 책, 33쪽. 《詩式》 ‘對句不對句條: “夫對者, 如天尊、地卑, 君臣、父子, 蓋天地自然之數. 若斤斧跡存, 不合自然, 則非作者之意.”
- 7) 같은 책, 28쪽. 《詩式》 ‘詩有六至條: “至麗而自然.”

然論은 詩歌 창작의 문제에 있어서 既存의 견해에 매이지 않고 관련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

司空圖는 詩學評論書 《二十四詩品》을 지어 24種의 風格을 논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自然’도 들어 있다. 우선 司空圖는 詩의 재료를 억지로 먼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접촉하면서 느끼는 바를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詩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또 빈 산에 사는 隱者가 자연의 운행에 따라 극히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詩 짓는 것 역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⁸⁾

劉勰과 鍾嶸 이후, 皎然과 司空圖 등은 詩歌의 창작 발생과 표현 문제 등 여러 면에 걸쳐서 ‘自然’을 주목하고 이를 강조하였는데, 이들의 논의는 후대에도 계속된 自然論의 전개에 상당한 기초가 되었다.

Ⅲ. 宋代 諸家の 自然論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自然論은 그 역사가 대체로 先秦에서 漢代까지는 주로 哲學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魏晉南北朝에 들어 드디어 文藝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唐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서는 ‘自然’의 문제가 詩學의 주요 문제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비교적 주목을 끄는 견해를 피력한 北宋의 蘇洵, 蘇軾, 張耒, 葉夢得, 그리고 南宋의 陸游, 楊萬里, 姜夔, 嚴羽, 包恢 등을 중심으로 宋代의 自然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8) 같은 책, 40쪽. “俯拾即是, 不取諸隣, 俱道適往, 著手成春, 如逢花開, 如瞻新歲, 眞予不奪, 強得易貧, 幽人空山, 過雨菜蕪, 薄言情悟, 悠悠天鈞。”

1. 北宋

(1) 蘇洵

蘇洵은 〈仲史字文甫說〉에서 바람과 물의 만남으로 물결무늬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들며 ‘自然’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바람과 물이 큰 못의 독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는 잔잔히 넘실대다가 빠르게 내달리는 듯하다가 망망한 바닷가에 이르러서는 큰 물결에 뒤섞여 용솨음치며 헤오라기나 잉어처럼 뛰어오르는 기이한 몸짓을 하면서 천하의 지극히 아름다운 물결무늬를 이루게 된다. 이에 대해 蘇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두 사물(바람과 물)이 어찌 무늬 만들기를 추구함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추구하려는 뜻이 없었고, 기약하지 않았으나 서로 만나 무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무늬는 물의 무늬도 아니고 바람의 무늬도 아닙니다. 두 사물이 무늬를 잘 만들 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늬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물이 서로 부러서 무늬가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하의 지극한 무늬입니다. 이제 저 玉은 온화하게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늬라고 여길 수 없으며, 아로새기고 수놓은 것들은 무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自然스럽다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 포함이 없으면서 무늬가 생겨나는 것은 오직 물과 바람뿐입니다.”⁹⁾

물과 바람이 만나 물결무늬를 이루는데, 蘇洵이 보기에 이 두 사물이 의도적으로 무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의도나 기약함도 없이 두 사물이 서로 만나다 보니 저절로 무늬가 생겨나게 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문학에도 적용하여

9) 吳文治, 《宋詩話全編》 第1冊, 鳳凰出版社, 1998, 283쪽. “然而此二物者, 豈有求乎文哉? 無意乎相求, 不期而相遭, 而文生焉. 是其爲文也, 非水之文也, 非風之文也, 二物者非能爲文, 而不能不爲文也. 物之相使而文出於其間也, 故曰: 此天下之至文也. 今夫玉非不溫然美矣, 而不得以爲文; 刻鏤組繡, 非不文矣, 而不可與論乎自然, 故夫天下之無營而文生之者, 唯水與風而已.”

생각해 볼 수 있다. 蘇洵보다 좀 이른 시기에 蜀지방 사람 田錫이 일찍이 “微風이 물을 움직이는데 조금도 정해진 무늬가 없다.(微風動水, 了無定文)”(《貽宋小著書》)는 말을 한 적이 있다. 蘇洵은 바람과 물의 관계에 관하여 좀 더 진일보한 분석을 보여주었다. 蘇洵의 이러한 이야기는 이후 宋代 사람들의 自然論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蘇軾

蘇軾은 글이란 기본적으로 작가가 景物 등과 접촉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강렬한 감흥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레 밖으로 드러내며 문자를 빌려 짓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南行前集叙>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글을 짓는 사람들은 글을 잘 지어서 그 글이 工巧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보니 工巧롭게 되는 것이다. 산과 강에 구름과 안개가 있고, 풀과 나무에 꽃과 열매가 있는 것은 속에 쌓인 것이 꼭 차고 성하여 밖으로 드러난 것인데, 비록 나타냄이 있지 않고자 하여도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글을 논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옛날의 성인들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글을 짓게 되었다고 생각했다.”¹⁰⁾ “글을 짓지 않을 수 없다(不能不爲)”는 것은 작가가 경물 등과 접촉하면서 자극을 받아 가슴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강렬한 감흥이 솟구쳐 글을 지음으로써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蘇軾의 아버지 蘇洵이 일찍이 바람과 물이 만나 ‘무늬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不能不爲文)’는 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소식의 위의 글은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글이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흥의 자연스러운 流露라는 이러한 생각은 惟獨 散文의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 蘇軾의 일반적인 문학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蘇軾은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詩의 형식을

10) 같은 책, 第1册, 711쪽. “夫昔之爲文者, 非能爲之爲工, 乃不能不爲之爲工也. 山川之有雲霧, 草木之有華實, 充滿勃鬱, 而見於外, 夫雖欲無有, 其可得耶! 自少聞家君之論文, 以爲古之聖人有所不能自已而作者.”

빌려 나타내게 된다고 보며, “詩 짓기를 급히 하여 도망하는 사람 쫓듯이 해야 하니, 淸麗한 경치가 한번 사라진 뒤에는 摹寫하기 어렵다네.”¹¹⁾(〈巖日遊孤山訪惠勤惠思二僧〉)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좋은 詩는 입에서 튀어나오니 누가 골라낼 수 있겠는가?”¹²⁾(〈重寄孫侔〉), “새로운 詩는 탄환과 같으니, 손을 벗어나 한순간도 걸리지 않네.”¹³⁾(〈次韻王定國謝韓子華過飲〉), “새로운 詩는 탄환과 같으니, 손을 벗어나 잠시도 멈추지를 않는다네.”¹⁴⁾(〈次韻答王鞏〉) 등과 같이, 역지로 쓰거나 인위적으로 다듬을 필요 없이 바로 붓을 휘둘러 자연스럽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作詩에서 표현은 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蘇軾은 말하기를, “나의 글은 만 섬이나 되는 샘의 원천에서 샘물이 땅을 가리지 않고 솟아나오는 것과 같은데, 평지에서는 넘실넘실 쿵쿵 흘러 설사 하루에 천리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산의 돌과 만나면 꾸불꾸불 흐르면서, 사물에 따라 형태를 이루는데, 하나하나를 모두 다 알 수는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고, 항상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것이니, 이와 같을 따름이다.”¹⁵⁾라고 하였다. 샘물이 땅 위를 흘러갈 때, 때로는 평지를 지나고 때로는 산의 돌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형편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글을 짓는 것을 比喻하면서 ‘隨物賦形說’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 역시 詩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샘물이 自然物에 따라 자연스럽게 運行하듯이 詩 짓기 역시 그러하니,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함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위의 글에서

11) 蘇軾, 《蘇東坡全集》, 《前集》 卷3, 河洛圖書出版社, 1975, 63쪽. “作詩火急追亡逋, 淸景一失後難摹.”

12) 吳文治, 앞의 책, 第1冊, 852쪽. “好詩衝口誰能擇.”

13) 같은 책, 第1冊, 857쪽. “新詩如彈丸, 脫手不移晷.”

14) 蘇軾, 《蘇東坡全集》, 《前集》 卷10, 147쪽. “新詩如彈丸, 脫手不暫停.”

15) 吳文治, 앞의 책, 第1冊, 784쪽. 〈自評文〉: “吾文如萬斛泉源, 不擇地皆可出, 在平地滔滔汨汨, 雖一日千里無難, 及其與山石曲折, 隨物賦形, 而不可知也. 所可知者, 常行於所當行, 常止於不可不止, 如是而已矣.”

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겸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움과 적절함의 결합이다.

그런데 蘇軾은 技巧을 아주 무시하지는 않고 鍛鍊을 중시하여, “대체로 시를 짓는 것은 마땅히 날마다 달마다 鍛鍊을 하여야 하는데 奇異한 것을 과시하고 다투려고 해서가 아니다.”¹⁶⁾(〈書贈徐信〉)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보면 蘇軾이 ‘自然’을 이상적인 경계로 여기고 있지만 鍛鍊 역시 중시하여 그 바탕 위에서 자연스러운 경지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3) 張耒

張耒는 詩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 “사람이 詩를 지을 때 사물에서 감동을 받지 않고, 감정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짓는 것은 모두 올바르게 된 것이 적다.”고 보았다.¹⁷⁾ 그리고 이러한 眞情을 표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것을 조탁하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을 주장하면서,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 입에서 저절로 나와 이루어진다. 골똥히 생각하지 않아도 정교하고, 조탁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은 모두 天理의 자연스러움이요 性情의 道理이다.”¹⁸⁾라고 말했다. 이어서 劉邦의 〈大風歌〉와 項羽의 〈垓下歌〉를 例로 들며, 이 작품들은 감정이 말로 표현되고 노래가사로 흘러나와 처량함과 원망이 함축되어 듣는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킨다고 평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어찌 고심해서 이런 작품을 얻었겠는가? 단지 그들의 뜻을 기탁했을 따름이다.(此兩人者, 豈其費心而得之哉. 直寄其意耳.)”(〈賀方回樂府序〉)라고 말했다.

물[水]로 文을 비유하여 논하는 것은 蘇洵 이후 蘇軾 등의 글에서 자주

16) 같은 책, 第1冊, 831쪽. “大抵作詩當日鍛月煉, 非欲誇奇鬪異.”

17) 張耒, 《張耒集》, 下冊, 中華書局, 2000, 840쪽. 〈上文潞公獻所著詩書〉: “故人之于詩, 不感于物, 不動于情而作者, 蓋寡矣.”

18) 같은 책, 下冊, 755쪽. 〈賀方回樂府序〉: “有滿心而發, 肆口而成, 不待思慮而工, 不待雕琢而麗者, 皆天理之自然, 而情性之道也.”

보이는데, 張耒 역시 그 영향을 받았으며, 나아가 물이 물길이나 기상 상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묘하고 독특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答李推官書〉에서 세심하게 분석하였다.

(4) 葉夢得

葉夢得은 훌륭한 詩란 인위적으로 생각을 짜내거나 말을 어렵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세상에는 謝靈運의 유명한 詩句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연못에 봄풀 돋아나고, 정원의 버들엔 지저귀는 새 소리 바뀌었네.)”의 뛰어난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奇特함으로 이 구절의 특색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葉夢得이 보기에 이 두 구의 뛰어난 점은 바로 의도적으로 지으려는 뜻이 없이, 갑자기 경물과 만나 느낀 바를 시로 나타내되, 고치고 다듬는 것을 빌리지 않은 데에 있다고 말했다.¹⁹⁾ 葉夢得은 杜甫 詩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높이 평가하며, 杜甫 詩는 “홀로 편안하게 한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서 조금도 힘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²⁰⁾

葉夢得은 詩를 지을 때 詩律이나 技巧의 적절한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詩語는 본래 교묘함의 운용이 너무 지나친 것을 꺼리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을 묘사함에 天然스럽게 工妙한 경우가 있으니, 비록 교묘함이 있더라도 彫琢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²¹⁾고 말하면서, 시인들이 詩를 지을 때 기교를 너무 지나치게 부리는 것을 반대하였다.

19) 吳文治, 앞의 책, 第3冊, 2704쪽. 《石林詩話》: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世多不解此語爲工, 蓋欲以奇求之耳. 此語之工, 正在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 借以成章, 不假繩削, 故非常情所能到. 詩家妙處, 當須以此爲根本, 而思苦言難者, 往往不悟.”

20) 같은 책, 第3冊, 2699쪽. 《石林詩話》: “而此老獨雍容閒肆, 出於自然, 略不見其用力處.”

21) 같은 책, 第3冊, 2708쪽. 《石林詩話》: “詩語固忌用巧太過, 然緣情體物, 自有天然工妙, 雖巧而不見刻削之痕.”

2. 南宋

(1) 陸游

육유는 作詩에서 雕琢과 自然스러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陸游는 詩에서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나타내면 되며 표현이 반드시 꼭 좋기를 구하지는 않다고 하였다.²²⁾ 그래서 시인들이 詩를 지으면서 대체로 工巧로움을 바라지만, 工巧로움 또한 詩의 지극한 경지는 아니며, 鍛煉을 오래하면 본뜻을 잃어버리게 된다²³⁾고 말하면서, 시인들이 좋은 표현을 얻기 위해 鍛煉을 하지만 이 鍛煉을 오래하다 보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警戒하였다. 그래서 工巧로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工巧로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붓 가는대로 맡겨 詩를 지을 것이지 너무 工巧롭지 말아야 하며,²⁴⁾ 그러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工과 拙 조차 잊어버리게 됨을 말했다. 陸游가 생각건대, 좋은 작품은 단련이나 조탁 등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순전히 自然스러운 流露이니, “문장은 본래 천연히 이루어지는 것, 교묘한 솜씨는 그것을 우연히 얻는다. 순수하여 흠이 없으니, 어찌 다시 인위적인 것을 필요로 하리오?”²⁵⁾라고 말했다.

陸游의 ‘自然論’은 단순한 원칙성의 말이 아니라, 詩壇에서 활동하는 江西詩派나 永嘉四靈 등의 폐단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詩法을 중시하는 黃庭堅도 陶淵明의 詩가 “번거롭게 먹줄을 치고 깎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법도에 부합됨(不煩繩削而自合)”(〈題意可詩後〉)을 최고의 경계라고 탄복한 바 있지만, 그의 실제 창작은 ‘好奇’ 또는 ‘生硬’ 등의

22) 陸游, 《陸放翁全集》, 世界書局, 1980, 1068쪽. 《劍南詩稿》, 卷78 〈野意〉: “詩纔適意寧求好.”

23) 吳文治, 앞의 책, 第6冊, 5777쪽. 《渭南文集》 卷39, 〈何君墓表〉: “大抵詩欲工, 而工亦非詩之極也. 鍛煉之久, 乃失本指.”

24) 같은 책, 第6冊, 5848쪽. 《劍南詩稿》 卷24, 〈和張功父見寄〉: “信筆題詩勿工.”

25) 같은 책, 第6冊, 5872쪽. 《劍南詩稿》 卷83, 〈文章〉: “文章本天成, 妙手偶得之. 粹然無疵瑕, 豈復須人爲.”

말로 비판을 면치 못하였으며, 황정건을 추종하는 강서시파 시인들은 황정건의 ‘脫胎換骨’, ‘無一字無來處’를 지나치게 신봉하였다. 陸游는 詩를 다듬는 작업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너무 깎고 다듬으면 도리어 正氣를 손상시킨다고 보았다.

(2) 楊萬里

楊萬里는 詩에서 自然스러움을 중시하였는데 張耒의 詩를 읽은 뒤, “만년에 張耒 詩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게 되었다.”²⁶⁾라고 말하면서, 繡를 놓고 아로새기기에 힘쓰기보다는 하늘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시로 나타내어야 된다고 보았다.

일찍이 蘇洵이 ‘風水相遭’說을 제기한 바 있으며, 楊萬里 역시 유사한 말을 하였는데, 바람과 물을 들어서 문학의 창작과정을 비유한 것은 蘇洵과 같으나 양만리는 물보다 바람에 좀 더 비중을 두어, 물결이 생기는 것은 물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받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시인이 詩를 짓는 것도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感興에 의해 비롯되니, “나는 애초에는 이런 詩를 짓는 데에 뜻이 없지만 이런 사물과 이런 일이 마침 나와 접촉하여, 나의 뜻 또한 마침 이 사물과 일에 느낌이 생겨나니, 접촉이 먼저 있고 感興이 그것을 따라, 이러한 詩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간여해서 그리되는 것이겠는가. 저절로 그런 것이다.”²⁷⁾라고 吐露한 바 있다. 그래서 양만리는 “내가 詩를 찾는 것이 아니라 詩句가 스스로 나를 찾아온다.”²⁸⁾고 말했다. 楊萬里는 처음에

26) 같은 책, 第6册, 5963쪽. 《誠齋集》 卷40, 〈讀張文潛詩〉: “晚愛肥仙詩自然, 何曾繡繪更瑣鑿. 春花秋月冬冰雪, 不聽陳玄只聽天.”

27) 같은 책, 第6册, 5964쪽. 《誠齋集》 卷67, 〈答建康府大軍庫監門徐達書〉: “大抵詩之作也, 興, 上也, 賦, 次也, 廢和, 不得已也. 我初無意於作是詩, 而是物是事適然觸乎我, 我之意亦適然感乎是物是事, 觸先焉, 感隨焉, 而是詩出焉, 我何與哉! 天也. 斯之謂興.”

28) 같은 책, 第6册, 5960쪽. 《誠齋集》 卷29, 〈晚寒題水仙花并湖山三首〉: “老夫不是尋詩句, 詩句自來尋老夫.”

는 黃庭堅의 江西詩派를 공부하였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였는데 여기에는 위와 같은 自然論 관련 認識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3) 姜夔

姜夔는 어떤 글이든 꾸밈을 통해서 工巧로와질 수 있지만 ‘妙’해지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꾸밈을 버려두고는 ‘妙’도 없게 되니, 뛰어난 경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²⁹⁾고 말했다. 인위적인 노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인 ‘妙’에 이르러야 됴을 강조하였는데, 姜夔는 시의 이상적인 경계로 ‘高妙’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詩에는 네 가지 종류의 高妙함이 있는데, 이치가 高妙한 경지(理高妙), 뜻이 高妙한 경지(意高妙), 생각이 高妙한 경지(想高妙),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高妙한 경지(自然高妙)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高妙’ 중에서도 姜夔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自然高妙’이다. “기이하지도 괴이하지도 않으며 문채를 떨쳐버리고 그 妙함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묘하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러움이 高妙하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人工雕琢과 文采를 떨쳐버리고 ‘그것이 妙하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극히 자연스러움의 奧妙한 경지라 할 수 있다.³⁰⁾

(4) 嚴羽

嚴羽는 詩를 지으면서 지나치게 딱 들어맞는 표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시인의 진실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을 강조하였다.³¹⁾ 嚴羽는

29) 같은 책, 第7冊, 7549쪽. 姜夔, 《白石道人詩說》: “文以文而工, 不以文而妙, 然舍文無妙, 勝處要自悟.”

30) 같은 책, 第7冊, 7550쪽. 姜夔, 《白石道人詩說》: “詩有四種高妙, 一曰理高妙, 二曰意高妙, 三曰想高妙, 四曰自然高妙. 礙而實通, 曰理高妙, 出自意外, 曰意高妙, 寫出幽微, 如清潭見底, 曰想高妙, 非奇非怪, 剝落文采, 知其妙而不知其所以妙, 曰自然高妙.”

31) 같은 책, 第9冊, 8725쪽. 嚴羽, 《滄浪詩話》, 《詩法》: “最忌趁貼.”

謝靈運의 詩가 비록 精妙하고 工巧하지만 陶淵明 詩의 질박하고 자연스러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했다.³²⁾

嚴羽는 또 詩法에 너무 구속을 받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宋代의 蘇軾과 黃庭堅 등이 ‘用事를 하는 데에 힘을 많이 쓰고’ ‘글자를 씬에 있어서 반드시 來歷이 있게 하고’ ‘押韻을 함에 반드시 出處가 있게 하였다’고 평하면서 불만을 나타냈다.³³⁾ 엄우는 ‘興趣’의 表達을 중시하며 이 ‘興趣’를 제대로 잘 나타내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詩法’ 문제를 검토하면서 自然스러운 창작을 중요시하였다.

(5) 包恢

包恢는 詩를 억지로 지을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을 주장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詩에 있어 억지로 짓지 않았으며 많이 짓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또 “詩를 지으려 하지 않지만 짓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들었다.³⁴⁾ 詩는 작자가 사물이나 어떤 경우를 접촉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강하게 일어나 밖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을 때 짓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시인이 외부 사물과 접촉을 하면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詩法이나 格式에 얽매임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이르는 경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치 천지조화의 자연스러운 소리와 같다. 대개 천지의 틀은 스스로 움직이고 천지의 소리는 스스로 울리니 천둥과 벼락으로 울리고 편안히 순서에 따라 움직여 드러내어 저절로 법도에 맞고 소리를 내면 저절로 무늬를 이루니 이것이 시의 지극함이다.”³⁵⁾ 그래서 包恢는 理學家로서 ‘自然’을 최고

32) 같은 책, 第9冊, 8727쪽. 嚴羽, 《滄浪詩話》, 《詩評》: “謝所以不及陶者, 康樂之詩精工, 淵明之詩質而自然耳.”

33) 같은 책, 第9冊, 8720쪽. 嚴羽, 《滄浪詩話》, 《詩辨》: “近代諸公 ……且其作多務使事, 不問興致; 用字必有來歷, 押韻必有出處.”

34) 같은 책, 第8冊, 8036쪽. 包恢, 《敝帚藁畧》卷2, 《答曾子華論詩》: “蓋古人於詩, 不苟作, 不多作……未嘗爲詩而不能不爲詩.”

35) 같은 책, 第8冊, 8036쪽. 包恢, 《敝帚藁畧》卷2, 《答曾子華論詩》: “猶造化自

의 境界로 여기며 〈答傅當可論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詩歌의 무리 들은 끝없이 넓으면서 담박한 것을 높게 여긴다. 그 體에는 造化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듯한 것도 있고, 造化가 이미 드러난 듯한 것도 있지만 모두 자연스러움으로 귀결되니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르면서 그렇게 된다.”³⁶⁾ 모든 것이 다 ‘自然’으로 귀결된다고 하니 ‘自然’이야말로 包恢가 생각하는 최고의 경지요 理想이라 할 수 있다.

IV. 宋代 自然論의 특색

위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중심으로 宋代 諸家の 自然論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宋代 詩學에서 거론된 自然論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즉 ① 情意와 ‘自然’의 문제, ② 工拙과 ‘自然’의 문제, ③ 法度와 ‘自然’의 문제 등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宋代에 ‘自然論’이 많이 제기된 背景으로 詩壇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情意와 ‘自然’

詩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詩言志’說, ‘詩緣情’說 등이 제기되어 왔다. 劉勰은 사람이 외부 사물을 접하면서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詩라고 보았다. 宋代의 시인들은 詩人과 외부 사물과의 관계에 좀 더 주목을 하였다. 蘇

然之聲也。蓋天機自動，天籟自鳴，鼓以雷霆，豫順以動，發自中節聲自成文，此詩之至也。”

36) 包恢, 《敝帚齋畧》 卷2, “詩家者流以汪洋澹泊爲高, 其體有似造化之未發者, 有似造化之已發者, 而皆歸於自然, 不知所以然而然也。”

洵은 물과 바람의 만남이라는 比喻를 통하여 文의 產生에 대해 이야기를 하었는데, 물과 바람이 만나 물결무늬를 이루지만, 이 두 사물이 의도적으로 무늬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며, 어떤 의도나 기약함도 없이 두 사물이 서로 만나다 보니 저절로 무늬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葉夢得 또한 詩는 의도적으로 지으려는 뜻이 없고, 사전에 미리 어떤 준비된 마음 없이 문득 경물과 만나는 순간에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글로 나타내는 것일 따름임을 강조하였다.³⁷⁾ 蘇軾은 작가가 경물 등과 접촉하면서 자극을 받아 가슴속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강렬한 감흥이 솟구쳐 글을 지음으로써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음을 말했다. 包恢는 詩 짓기를 ‘草木이 본래 소리가 없으나 건드리는 바가 있어서 울고, 金石이 본래 소리가 없으나 두드리는 바가 있어서 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詩를 지으려 하지 않지만 짓지 않을 수 없다.(未嘗爲詩而不能不爲詩)”(〈答曾子華論詩〉)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宋代의 비평가와 시인들은 ‘自然’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詩를 억지로 짓는 것은 옳지 않게 보고, 많이 지으려고 들어서도 안 되며, 詩를 짓기에 너무 苦心하고 힘을 들이며 의도적인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았다. 葉夢得은 謝靈運의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구절의 工巧로움은 바로 ‘어떠한 用意도 없다(無所用意)’는 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黃庭堅은 杜甫의 시를 평하면서 “杜甫 詩의 妙處는 바로 글을 지음에 뜻을 두지 않음에 있는데, 글에 뜻을 두지 않는데도 뜻은 이미 나타나 있다.”³⁸⁾고 높이 평가하면서 역시 글을 짓는 자체에 뜻을 두지 않는 ‘無意’를 강조했다. 그런데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黃庭堅의 古律詩가 “요컨대 그 병폐는 너무 뜻을 기울이는(太著意) 데에 있어, 古今의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은 말을 말하려고 하였다.”³⁹⁾는 張嶠의 비판이 있었다.

37) 吳文治, 앞의 책, 第3冊, 2704쪽. 葉夢得, 《石林詩話》: “正在無所用意, 猝然與景相遇, 借以成章, 不假繩削.”

38) 같은 책, 第3冊, 941쪽. 黃庭堅, 《山谷集》 卷17, 〈大雅堂記〉: “子美詩妙處, 乃在無意於文, 夫無意於文而意已至.”

宋代의 시인들은 그 이전 朝代에 비해 ‘意’의 표달을 중시하였는데, 劉攽은 《中山詩話》에서 “詩는 意가 主이고 文詞는 그 다음이다. 혹 뜻이 깊고 의리가 높으면 비록 文詞가 平易할지라도 자연 뛰어난 작품이 된다.”⁴⁰⁾ 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宋代의 시인들은 ‘自然’과 ‘意’의 추구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특별한 意圖나 目的, 억지로 함이 전혀 없이 情意가 저절로 표출되어 詩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경지를 지향했다.

2. 工拙과 ‘自然’

시인이란 대체로 누구나 詩를 잘 짓고자 하는데, 중국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詩歌에서 ‘工拙’의 문제를 따졌으며, 宋代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여러 사람들에 의해 ‘工拙’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법에 대해서도 唐代보다 더 깊은 논의가 행해졌다. 이렇게 詩 짓기에서 ‘工’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면서 宋代의 시인과 시론가들은 ‘自然’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을까?

우선, 지나치게 ‘工’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黃庭堅은 彫琢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工巧로우며, 세상에 진정한 工巧함이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⁴¹⁾ 葉夢得은 훌륭한 詩는 인위적으로 생각을 짜내거나 말을 어렵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詩語는 진실로 기교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⁴²⁾라고 말하면서 단지 詩語만 工巧로운 것을 비판하고 用意가 深遠해야함을 주장하였다.⁴³⁾

39) 張嶠, 《紫微集》, 〈黃庭堅豫章集序〉: “要其病在太著意, 欲道古今人所未道語爾.”

40) 吳文治, 앞의 책, 第1冊, 442쪽. “詩以意爲主, 文詞次之, 或意深義高, 雖文詞平易, 自是奇作.”

41) 吳文治, 앞의 책, 第2冊, 956쪽. 黃庭堅, 《山谷外集》 卷9, 〈書張仲謀詩集後〉: “作語多而知不瑀爲工, 事久而知世間無巧.”

42) 같은 책, 第3冊, 2708쪽. 《石林詩話》: “詩語固忌用巧太過.”

그래서 宋代의 사람들은 ‘工’보다는 ‘自然’을 더 중시하였다. 嚴羽는 謝靈運의 詩를 평하면서, 그의 詩가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對句를 이루고 精工하지만, 작품 全篇에 걸쳐 氣象이 뛰어난 建安의 시나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陶淵明의 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했다.⁴³⁾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기도 하니, 劉克莊은 “수고스럽게 工巧로움을 구하지는 않지만, 工巧롭지 않으면 또 읽을 만하지를 못한다.”⁴⁴⁾(〈答林公揆監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너무 의식적으로 工巧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또 반대하였는데, 의식적으로 工巧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개 工巧로울 수 없다고 전제하며, ‘大氣魄’과 ‘大力量’에 바탕을 두고서 의식적으로 너무 工巧로움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工巧로워지는 경지를 추구하였다.⁴⁵⁾ 葉夢得은 杜甫의 詩가 工妙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自然스럽게 나왔기에 조금도 애쓴 흔적이 없다고 찬사를 보냈는데 이것은 ‘工妙’와 ‘自然’의 결합을 제시한 것이다.⁴⁶⁾

陸游는 雕琢과 ‘工拙’에 너무 얽매이는 것을 반대하여 “대체로 시는 工巧를 바라지만 工巧함 또한 시의 極致는 아니다.”⁴⁷⁾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詩란 감흥을 적어내는 것에 달린 것이지 工과 拙은 잊어버린다네.”⁴⁸⁾라고 말하면서, ‘工’과 ‘拙’조차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

43) 같은 책, 第3冊, 2694~2695쪽. 《石林詩話》: “杜子美……自漢、魏以來, 詩人用意深遠, 不失古風, 惟此公爲然, 不但語言之工也.”

44) 같은 책, 第9冊, 8727쪽. 嚴羽, 《滄浪詩話》, 〈詩評〉: “謝所以不及陶者, 康樂之詩精工, 淵明之詩質而自然耳.”

45) 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臺灣商務印書館, 卷130, 1155쪽. “不苦不工, 然不工又不可讀.”

46) 劉克莊, 《後村先生大全集》, 臺灣商務印書館, 卷132, 1167쪽. 〈回信庵書〉: “略知古今作者旨趣, 大率有意於求工者率不能工, 惟不求工而自工者爲不可及, 求工不能工者滔滔皆是, 不求工而自工者非有大氣魄大力量不能.”

47) 吳文治, 앞의 책, 第3冊, 2699쪽. 《石林詩話》: 如“江山有巴蜀, 棟宇自齊梁”, …… 此皆工妙至到, 人力不可及, 而此老獨雍容閒肆, 出於自然, 略不見其用力處.

48) 같은 책, 第6冊, 5777쪽. 陸游, 《渭南文集》 卷39, 〈何君墓表〉: “大抵詩欲工, 而工亦非詩之極也.”

하게 나타낼 것을 주장하였다.

3. 法도와 ‘自然’

시인들은 詩를 짓기 위해 詩法을 고려한다. 그런데 문제는 詩法과 ‘自然’과의 관계로, 詩法을 잘 준수하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自然’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蘇軾은 시를 지움에 自然스러움을 중시하고 틀의 구속을 거부하며, “그림을 논하면서 外形이 같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애의 견해에 가까운 것이다. 詩를 지움에 반드시 이런 詩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진정 詩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詩와 그림은 본래 한 가지 이치이니, 自然스럽고 清新해야 한다.”⁵⁰⁾라고 말하였다. 包恢 역시 詩를 지을 적에 詩法이나 格式에 너무 매이는 것을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세 사람들은 …… 걸핏하면 앞 사람들의 體裁나 格式에 구속받고 얽매어 그것을 모방하여 짓는데, 하나라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바로 비난을 한다.”⁵¹⁾ 嚴羽 또한 詩法을 盲從하거나 혹은 詩法에 너무 구속을 받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蘇軾과 嚴羽가 法度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蘇軾은 “새로운 뜻을 法度 속에서 낸다.”⁵²⁾라고 말하였으며,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詩法》편을 특별히 두어 각종 詩法 관련 문제를 논하였다.

宋代의 사람들은 法度を 익히되 그것에 구속을 받는 것은 피하고자 하였다. 葛立方은 “終日 法度の 가운데에서 다니지만 그 흔적은 쌓이지 않는다”⁵³⁾ 것을 이상적인 경지로 제시하였다.

49) 같은 책, 第6冊, 5868쪽. 《劍南詩稿》卷77, 〈初晴〉: “詩憑寫興忘工拙.”

50) 같은 책, 第1冊, 859쪽. 《蘇軾詩集》第5冊, 〈書鄴陵王主簿所畫折枝〉: “論畫以形似, 見與兒童鄰. 賦詩必此詩, 定非知詩人. 詩畫本一律, 天工與清新.”

51) 包恢, 《敝帚藁畧》卷2, 〈論五言所始〉: “後世……動必規規焉拘泥前人之體格, 以倣效而爲之, 一有不合, 卽從而非之.”

52) 蘇軾, 《蘇軾文集》, 中華書局, 2004, 第5冊, 2210~2211쪽. 〈書吳道子畫後〉: “出新意於法度之中.”

黃庭堅은 나아가 法度의 익힘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自然’의 경지에 이를 것을 제안했다. 黃庭堅은 본래 法度의 학습을 중시하며 雕琢의 행위를 가버이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도끼로 깎아 다듬은 흔적이 없는” 境界에 도달하는 것을 추구하여, “詩文의 성취는 도끼로 깎아 다듬은 흔적이 없어야 비로소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⁵⁴⁾라고 말했다. 黃庭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杜甫의 夔州 이후 詩와 韓愈가 潮州로부터 還朝한 후의 문장을 보면 모두 번거롭게 먹줄을 치고 깎아 다듬지 않아도 저절로 부합한다.”⁵⁵⁾는 것이니, 法度에 맞추어 다듬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法度에 맞는 경지를 일컫는 것이다.

葉夢得은 法度와 ‘自然’의 결합을 제시했다. 葉夢得은 王安石의 詩가 煉字, 對偶, 그리고 用事 등에서 모두 精切, 工整하다고 보았는데 특히 “王荊公의 晚年詩는 詩律이 더욱 精嚴하고, 詩語를 만들고 글자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이 말과 결합하고, 말이 뜻을 따라 구사되어,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牽強附會하고 늘어놓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⁵⁶⁾고 말하면서 詩律·法度의 자연스러운 운용, 詩律·法度와 自然스러움의 결합을 높이 평가했다.

宋代의 시인들은 ‘自然’의 경지를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는데, 法度와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法度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法度의 구속을 받지 않고자 하였으며, 法度의 구속을 받지 않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또 法度에 맞지 않는 곳이 없는 경지를 지향했다.

이렇듯 宋代의 시인과 비평가들은 시가 창작에서 ‘自然’을 최고의 경지

53) 吳文治, 앞의 책, 第8冊, 8216쪽. 葛立方, 《韻語陽秋》, 卷3. “終日行於規矩之中, 而其迹未嘗滯也.”

54) 같은 책, 第2冊, 943쪽. 黃庭堅, 《山谷集》 卷19, 〈與王觀復書 2〉: “文章成就, 更無斧鑿痕, 乃爲佳作耳.”

55) 같은 책, 第2冊, 943쪽. 黃庭堅, 《山谷集》 卷19, 〈與王觀復書 1〉: “觀子美夔州後詩, 韓退之自潮州還朝後文章, 皆不煩繩削而自合矣.”

56) 吳文治, 앞의 책, 第3冊, 2688쪽. 《石林詩話》: “王荊公晚年詩律尤精嚴, 造語用字, 間不容髮. 然意與言會, 言隨意遣, 渾然天成, 殆不見有牽率排比處.”

로 삼았으며, 情意와 工拙, 그리고 法度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세심히 살폈다.

4. 詩壇의 狀況과 自然論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宋代 詩學에서 自然論이 詩學에서 중요한 하나의 原論으로서 논의된 데에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詩壇의 狀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張表臣은 楊億을 대표로 하는 西崑體의 詩가 雕琢이 너무 심하며 ‘天然’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였다.⁵⁷⁾ 그리고 葉夢得, 陸游, 楊萬里, 姜夔, 嚴羽 등도 역시 詩壇의 弊端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自然論을 제시했다. 陸游는 만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雕琢에 치중하고 奇險한 데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⁵⁸⁾ 嚴羽 역시 黃庭堅과 그를 추종하는 江西詩派가 지나치게 法도를 중시하면서 점차 法도의 틀 속에 매이고, 따라서 이들의 詩가 生硬하고 晦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弊端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張戒는 蘇軾과 黃庭堅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劉勰이 이른바 “감정이 치솟아 글을 짓는 것이지 글을 위하여 감정을 꾸미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글을 위하여 감정을 꾸미는 것’을 반대하였다.⁵⁹⁾

이러한 自然論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제기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작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北宋의 張耒는 詩에서 감정의 자연스러운 流露를 주장하였는데 楊萬里는 張耒 詩의 自然스러움을 좋아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南宋에 들어서는 詩壇에 큰 영향력을 떨치는 江西詩

57) 같은 책, 第3冊, 2603쪽. 張表臣, 《珊瑚鉤詩話》 卷1, “篇章以含蓄天成爲上, 破碎雕鏤爲下. 如楊大年西崑體, 非不佳也, 而弄斤操斧太甚, 所謂七日而混沌死也.”

58) 같은 책, 第6冊, 5868쪽. 《劍南詩稿》 卷78, 《讀近人詩》: “雕琢自是文章病, 奇險尤傷氣骨多.”

59) 같은 책, 第3冊, 3240쪽. 《歲寒堂詩話》 卷上, “詩妙于子建, 成于李、杜, 而壞于蘇、黃、…… 劉勰云: 因情造文, 不爲文造情, 若他人之詩, 皆爲文造情耳.”

派가 弊端을 드러내면서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詩 세계를 추구하는 시인들의 노력이 이어지는데 그중에서도 陸游과 楊萬里가 대표적인 존재이며, 陸游의 詩가 自然스럽고 老鍊, 簡潔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나,⁶⁰⁾ 楊萬里的 詩를 언급하면서 ‘活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등은 모두 이들이 自然論에 입각하여 詩를 지었음을 잘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⁶¹⁾

IV. 나가는 말

‘自然’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철학 사상과 문학, 書畫 등 광범한 범위 속에서 널리 쓰여 온 주요 개념이다. 文學에서의 自然論은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唐代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 詩學에 있어서 自然論이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宋代의 시인들은 앞 시대의 自然論의 기초 위에서 詩學에서 ‘自然’의 문제에 대해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행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宋代의 自然論이 이전의 논의와 다른 모습이자 특색이기도 하다.

宋代에는 詩歌 創作에서 ‘意趣’의 表達을 중시하고 ‘法度’와 ‘工拙’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논의들이 상당히 대두되었다. 그러면 ‘意’나 ‘法度’, ‘工拙’의 重視와 ‘自然’ 重視와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하는 것이 宋代에 들어 시인들이 새로이 더 주목하는 문제의 중심이 되었다.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자칫 서로 衝突, 혹은 對立的인 사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들을 宋代의 시인이나 비평가들은 어느 한쪽으로의 偏向 보다는 ‘自然’을 중시하는 바탕 위에서 ‘情意’와 ‘自然’, ‘工拙’과 ‘自然’, ‘法度’와 ‘自然’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宋

60) 郭紹虞, 《清詩話續編》 上, 上海古籍出版社, 1999, 1222쪽. 趙翼, 《甌北詩話》 卷6. “放翁工夫精到, 出語自然老潔.”

61) 吳文治, 앞의 책, 第7冊, 7532쪽. 張鎡, 《南湖集》 卷7, 〈攜楊秘監詩一編登舟因成二絕〉 제2수: “目前言句知多少, 罕有先生活法詩.”

代의 시인들은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그치지 않고, 詩壇의 바람직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自然論을 제기하면서 실제 창작에서도 반영을 하였다.

宋代 이후에도 詩學에서 ‘自然’에 관한 논의가 여러 朝代에 걸쳐서 꾸준히 제기되어, 여러 사람들이 앞에서 살핀 宋代 諸家の 自然論을 기초로 하면서 ‘自然’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전체 중국고전문학비평의 역사에 있어서 宋代 詩學의 자연론이 갖는 위치와 의의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1. 蔡鍾翔, 《美在自然》, 百花洲文藝出版社, 2001.
2. 顧易生·蔣凡·劉明今, 《宋金元文學批評史》, 上海古籍出版社, 1996.
3. 李顯雨, 《〈文心雕龍〉의 용어 ‘自然’과 그 이론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40집, 2009.
4. 李致洙, 《陸游詩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
5. 李致洙, 《宋代 詩學의 展開에 있어서 「詩法」問題 研究》, 《省谷論叢》 第36輯, 2005.
6.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工拙論의 展開와 宋代 文化的 特性 研究》, 《中國語文學》 第62輯, 2013.
7. 李致洙, 《姜夔 《白石道人詩說》의 詩法論》, 《中國語文論叢》 36집, 2008.
8. 李致洙, 《葉夢得 《石林詩話》의 詩論》, 《中國語文學》 69집, 2015.
9. 王明建, 《从老庄到刘克庄: “自然”美学观的发展之路》, 《文学评论》 第2期, 2007.
10.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 Abstract >

‘The theory of nature’ was discussed mainly in the philosophy area from the Pre-Qin Period to the Han dynasty, and finally in the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it began to enter the field of literature and art. In the Song dynasty, ‘The theory of nature’ became the main problem of poetry’s creation, criticism and appreciation. Discussions on ‘the poem theory of nature’ include Northern Song Dynasty’s Su Xun, Su Shi, Zhang Lei, Ye Mengde, Southern Song Dynasty’s Lu You, Yang Wanli, Jiang Kui, Yan Yu, and Bao Hui. ‘The poem theory of nature’ in Song dynasty emphasized the relation between ‘nature’ and ‘affection’, ‘skillful and clumsy’, and ‘poem method’. ‘The poem theory of nature’ has becom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d core contents of poetics of Song dynasty.

Key Words : 宋代(Song Dynasty), 詩學(Poetics), 自然論(the theory of nature), 蘇洵(Su Xun), 蘇軾(Su Shi), 張耒(Zhang Lei), 葉夢得(Ye Mengde), 陸游(Lu You), 楊萬里(Yang Wanli), 姜夔(Jiang Kui), 嚴羽(Yan Yu), 包恢(Bao Hui)

